

미국의 6·25전쟁 연구 동향¹⁾

金 映 浩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 론: 6·25전쟁 연구의 시기 구분
2. 6·25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경향과 평가
3. 6·25전쟁 직전 중·소 관계의 평가를 둘러싼 논란
4. 6·25전쟁 결정시 중국의 역할과 중국의 개입 이유에 관한 연구 동향
5. 6·25전쟁과 냉전의 기원 및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향
6. 결 론: 여타 연구 주제들과 향후 연구 과제

1. 서 론: 6·25전쟁 연구의 시기 구분

탈냉전 시기에 되돌아보는 6·25전쟁은 냉전 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냉전의 전개와 종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냉전체제는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 분할에 의한 양극체제였다. 6·25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 이 논문은 2005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양극체제는 매우 느슨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6·25전쟁을 계기로 하여 미국과 소련은 세력권 내부의 국가들과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양극체제는 매우 견고한 체제로 바뀌어갔다. 미국은 집단안보체제 형식을 갖추었지만 제대로 된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6·25전쟁 이후 다자간 군사안보동맹으로 전환시켰다. 또한 미국은 6·25전쟁을 전후하여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아시아지역에서도 중국공산혁명 이후 유동적 상황은 종식되고 견고한 양극체제가 등장했다. 6·25전쟁 직전 스탈린과 장개석 사이의 구중소동맹이 폐기되고 스탈린과 모택동 사이에 신중소동맹이 체결되었다. 6·25전쟁은 중국의 대소련경사정책을 더욱 강화시켰다. 6·25전쟁의 결과 유럽과 아시아에서 등장한 양극적 질서는 냉전의 전개과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겪었지만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커다란 변화없이 지속되었다.

6·25전쟁은 냉전기간 중 미국과 소련이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여 싸운 유일한 전쟁이었다. 소련은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전쟁준비 및 작전 지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군 조종사와 전투비행단을 파견하여 미 공군과 직접 압록강 상공에서 공중전을 벌였다. 물론 미국과 소련은 양국 사이의 교전 사실을 양국 국민과 세계 여론을 자극하지 않도록 극비에 부쳤다. 미국 공문서 보관소(National Archives)에 보관되어 있는 6·25전쟁 당시 작성된 극동사령부 정보보고서(Intelligence Summary)를 보면 소련군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지워져 있거나 여전히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한반도상에서 양국 사이의 군사적 대결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양국은 6·25전쟁을 제한전화 시키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했음이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6·25전쟁의 경험은 양국에게 직접적 군사대결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쿠바위기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는 열전으로 치닫지 않고 위기로 끝났다.

미국내에서 6·25전쟁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소 냉전 대결과 밀접한 연관성하에서 국제정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미국내에서 냉전 연구와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주의와 대립되는 수정주의적 해석의 대두와 함께 6·25전쟁의 내전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연구 경향이 바뀌게 된다. 냉전 종식과 함께 북한을 제외한 6·25전쟁 관련 공산권 문서들이 공개됨으로써 전통주의와 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한 재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탈냉전 이후 6·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재해석은 한국 국내와 달리 미국 내에서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핵 문제로 인하여 많은 한국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냉전과 6·25전쟁 연구 자체가 정책적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글은 미국에서의 6·25전쟁 연구 동향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 짓고 각 시기마다 공통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6·25전쟁 연구의 제1기는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수정주의적 흐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1970년대 말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6·25전쟁 관련 논의는 주로 전쟁 결정에 직접 참여한 미국 관리들의 회고록이나 글들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²⁾ 미국 정부의 비밀문서들이 25년이 경과하면서 비밀 해제되고 6·25전쟁 관련 공식문서를 집대성한 『미국의 대외관계』(*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는 6·25전쟁 관련 문서를 묶어 1976년에 출간되었다.³⁾ 그 이전에도 미국 정부의 6·25전쟁 결정 관련 내용들은 맥아더 청문회 때 많은 것들이 공개되었다.⁴⁾ 진행 중인 전쟁과 관

2) Harry S. Truman, *Memoirs*, Vol. II (New York: Signet Books, 1965); Dean Acheson, *Present at the Creation* (New York: Norton, 1969); Louis J. Halle, *The Cold War as History* (New York: Harper & Row, 1967) 등 수많은 회고록들과 저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3) U. S. State Department,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0, Vol. VII: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6).

4) U. S. Senate, *Military Situations in the Far East*, pt. 1, 82nd Congress, 1st Session, 1951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1).

련된 문건이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한 맥아더 해임 이후 의회의 비판과 부정적 국민적 여론에 직면하여 트루만 행정부는 스미스(Beverly Smith) 기자에게 미국의 6·25전쟁 개입과 관련된 극비의 문서들을 제공하여 글을 발표케 하여 사실 관계를 일반에게 소상하게 알리려고 노력했다.⁵⁾ 트루만 행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6·25전쟁 발발과 미국의 개입 문제를 수정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스톤(I. F. Stone)의 저서에 의해 자극 받은바 매우 컸다.⁶⁾ 제1기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지배적이던 시기에 스톤의 책은 음모론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 책은 일본어로 번역되어 일본학계 및 일본인들의 6·25전쟁에 관한 시각을 수정주의적으로 기울게 하는데 기여했다.

미국에서 6·25전쟁 연구의 제2기는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반전테모가 미국 대학 전역에서 일어나고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했던 전통주의적 해석이 도전받으면서 시작되었다. 6·25전쟁에 관한 수정주의적 해석이 등장하기 이전에 냉전 기원 및 전개과정과 관련된 수정주의적 해석이 먼저 등장했다. 수정주의적 냉전 해석의 등장과 함께 6·25전쟁을 포함한 미국이 간여한 지역적 문제들에 대해 전통적 입장에 대한 광범한 재해석이 이루어졌다. 수정주의자들은 냉전의 기원을 미국 자본주의체제의 성격에서 찾고 세계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찾는다. 전후 소련은 매우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봉쇄전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소련 위협을 과장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소련 주도하의 단일의 세력을 이루었다는 식으로 왜곡된 인식을 전통주의는 갖고 있다

5) Beverly Smith, "The White House Story: Why We Went to War in Korea," *Saturday Evening Post*, November 10, 1951; Memorandum for Truman, June 18, 1951, box 76, Elsey Papers, Harry S. Truman Library.

6) I. F. Stone,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1950-1951* (Boston: Little, Brown, 1988).

고 수정주의자들은 비판했다.⁷⁾

미국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수정주의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6·25전쟁 개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⁸⁾ 이러한 한반도 내부의 국내정치적 요인을 강조하는 수정주의적 해석은 커밍스의 『6·25전쟁의 기원』 출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학계에 등장했고 제2기 미국의 6·25전쟁 연구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 및 일본 학계에도 수정주의적 조류가 학문적 주도권을 행사케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탈냉전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이러한 경향은 역설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6·25전쟁 관련 정부문서가 일반에게 대부분 공개된 시점에서 전통적 해석과는 전혀 다른 수정주의적 입장이 학계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미국 내의 분열과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1967년 당시 국방장관 맥나마라 장관의 지시로 불과 15부만 작성된 ‘펜타곤 페이퍼’가 『뉴욕 타임스』에 의해 전격적으로 공개된 것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 베트남전쟁을 두고 얼마나 인식의 골이 깊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제2기의 흐름은 수많은 역사적 왜곡과 오류를 안고 있었던 수정주의에 의해 주도되었고 수정주의의 사실적 문제점들과 이론적 한계점들이 비판받고 극복되는 데에는 공산권의 붕괴와 더불어 공산권 문서들의 공개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3기는 냉전 종식과 함께 공산권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공개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자료의 공개는 붕괴한 국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 학계와 연구 재단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국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7) 수정주의적 입장에 대한 요약은 John Louis Gaddis, “Emerging Post-Revisionist Synthesis,” *Diplomatic History*, Vol. 7, No. 3(Summer 1983), pp. 172-173.

8) Frank Baldwin, “Introduction,” *Without Parallel*, Frank Baldwin, ed.(New York: Pantheon, 1974), pp. 8-9.

for Scholars)는 1991년말 ‘국제냉전사 프로젝트’(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를 맥아더 재단(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의 지원하에 시작했다.⁹⁾ 이 프로젝트는 새로 발굴되는 공산권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학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냉전사 프로젝트 회보’(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를 1992년 봄부터 발간하기 시작했고 현재 총 15번까지 출간되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최근 공개된 공산권 문서에 기초한 ‘연구보고서’를 출간했고 현재까지 총 47번까지 나왔다.

‘국제냉전사 프로젝트 회보’ 1993년 봄호에 소련전문가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의 1996년 작성된 소련외무성 6·25전쟁 관련 자료가 최초로 소개되면서 6·25전쟁 발발, 전개과정, 종전에 대한 연구가 다국적 문서에 기초한 국제사적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¹⁰⁾ 또한 그녀는 소련의 대북한 점령정책과 6·25전쟁 결정 참여 과정을 보여주는 문서들을 발굴하고 일련의 논문들을 발표함으로써 탈냉전 시기 6·25전쟁사 연구의 대표적 학자로 떠올랐다.¹¹⁾ 소련문서에 기초하여 미국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때 1994년 6월 러시아 옐친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6·25전쟁 관련 소련문서 216건을 제공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9)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 사이트 <http://wwics.si.edu>에서 검색 가능하다.

10) Kathryn Weathersby, “New Finding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이하 CWIHP Bulletin으로 약칭), No. 3(Spring 1993), pp. 1, 14-18.

11) 웨더스비의 6·25전쟁 관련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Kathry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New Documentary Evidence,”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2, No. 4(Winter 1993), pp. 425-458;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CWIHP Working Paper No. 8*, Woodrow Wilson Center 1993; “To Attack, or Not to Attack? Stalin, Kim Il Sung, and the Prelude to War,” *CWIHP Bulletin*, No. 5(Spring 1995), pp. 1-9; “New Russian Document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s. 6-7(Winter 1995/1996), pp. 30-84.

번역하여 일반에게 공개했다.

소련문서의 공개와 더불어 중국의 6·25전쟁 관련 문서들도 영문으로 번역되었고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출간되기 시작했다.¹²⁾ 또한 6·25전쟁과 관련된 중국측과 소련측 문서들의 차이점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양국의 개입 과정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다.¹³⁾ 미국 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북한 노획문서에 기초하여 6·25전쟁 발발과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서들이 출간됨으로써 6·25전쟁은 전쟁참전 모든 국가들의 1차 자료에 기초하여 다국적 전쟁사 연구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¹⁴⁾

미국에서 6·25전쟁 연구 동향은 세 시기에 걸쳐 나타난 연구 성과들을 동시적으로 비교할 때 제대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 성과는 새로 발굴된 자료에 비추어 재조명될 때 그 타당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과 관련된 주제와 연구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의 편의상 미국 학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6·25전쟁 관련 미국의 지성사를 드러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6·25전쟁 원인과 관련된 논의들은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였다. 공산권 문서는 남침에 대한 북방 공산 3국의 사전 협의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6·25전쟁 결정을 주도했는지, 스탈린의 전략적 의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

12)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s. 6-7, pp. 41-53.

13) Alexandre Y. Mansourov, "Stalin, Mao, Kim, and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Sept. 16-Oct. 15, 1950: New Evidence from the Russian Archives," *CWIHP Bulletin*, Nos. 6-7, pp. 94-121.

14) 방선주, "노획 북한필사문서 해제(1)", 『아시아문화』 제1권(1986); 하기와라 료, 『6·25전쟁』(서울: 한국논단, 1995).

되고 있다. 6·25전쟁 직전 중·소 관계의 성격을 두고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 학계의 관심은 중국의 사건 개입 여부와 참전 이유를 설명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탈냉전 이후 미국 학계에서 6·25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중국 관련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25전쟁과 동북아 냉전 원인에 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탈냉전 이후 부진하다. 이 글은 이상의 주제와 관련하여 미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그 밖의 주제에 대한 미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설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2. 6·25전쟁 원인에 관한 연구 경향과 평가

미국 학계에서 탈냉전기 6·25전쟁 연구자들 사이에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는 6·25전쟁 원인과 관련된 주제이다. 전통주의적 입장은 6·25전쟁이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다.¹⁵⁾ ‘스탈린 지시설’은 트루만과 그의 고위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공유된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다.¹⁶⁾ 트루만을 비롯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모두 북한의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트루만은 과거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제국주의자의 행위와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정책이 유사하다고 보고, 만약 한국이 자유세계의 저항없이 적화된다면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봉쇄선 주변부의 약소국들을 계속해서 점령할 것이라고 보았다.¹⁷⁾ 트루만과 마찬가지로 애치슨은 6·25전쟁은 단순히

15) 6·25전쟁 원인과 관련된 기존 입장들에 대한 논의로는 김학준, 『6·25전쟁』 제3판(서울: 박영사, 2003), pp. 53-104를 참조.

16) Truman, *Memoirs*, Vol. II, pp. 378-379.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역적 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¹⁸⁾ 한국이라는 지역을 의미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단순히 한반도에서 발생한 전쟁을 6·25전쟁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미국과 소련이 바라보는 6·25전쟁이 아니라고 애치슨은 주장했다. 애치슨은 6·25전쟁은 단순히 한반도에서 일어난 국지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이 세계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결의 일환이라고 보았다.

국무성 산하 정보조사국(OIR)은 6·25전쟁 발발 직후 제출한 정보보고서에서 북한이 완전히 크레믈린의 지배하에 있고 북한은 소련의 지시없이 남침을 결정했을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은 소련의 움직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⁹⁾ 6·25전쟁을 통하여 소련이 추구한 세계전략적 목적들은 군사적으로 소련에게 유리한 지역에서 대소 총력외교(total diplomacy)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시험하고, 미국의 위신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소련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한국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미국 관리들의 입장은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공산권이 소련 중심의 단일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공개된 소련 문서들은 김일성이 1949년 수차례에 걸쳐 스탈린에게 남침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일방적으로 남침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결정 과정에서 스탈린과 김일성 중 어느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학자들 사이의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우선 김일성은 남침을 계속 주장했다는 점에서 6·25전쟁 발

17) *Ibid.*, pp. 378-379.

18) "Notes on Meeting in Secretary's Office on MacArthur Testimony," May 16, 1951, box 63, Papers of Dean Acheson, HSTL.

19) Intelligence Estimate by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 June 25, 1950, *FRUS*, 1950, Vol. VII, pp. 148-154.

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은 스탈린의 동의와 지원 없이는 남침을 결행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전쟁 결정 과정에서 스탈린의 역할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스탈린의 일방적 지시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탈린 역시 1949년 내내 김일성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갑자기 기존 입장을 선회하여 1950년초 전쟁 지원을 결정한 사실에서 스탈린의 세계전략적 고려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6·25전쟁 발발은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미국측 문서가 대부분 공개되면서 미국의 6·25전쟁 발발 연구에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커밍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정주의자들은 전쟁 결정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쟁의 원인을 한반도 및 북한 내부에서 찾는 내전론을 주장하게 되었다. 커밍스 내전론은 6·25전쟁 직전에 일어난 국경분쟁에서 6·25전쟁의 직접적 원인을 찾는다. 그의 내전론은 『6·25전쟁의 기원』 제2권에서 “제2의 모자이크”(second mosaic)라는 가설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²⁰⁾ 이 주장의 핵심은 1950년 6월 24일과 25일 새벽 사이에 남한측의 용진반도 상에서의 도발과 이것에 대한 북한측의 반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쟁이 용진반도에서 철원, 금화, 양양 등 38선 전역으로 확산되어 남북한 사이의 전면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2의 모자이크” 가설을 전개하면서 커밍스는 남한이 용진반도에서 도발하였을 때 북한군은 여름 군사기동훈련을 위하여 상당한 병력이 38선 근처에 동원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은 이 병력을 남한측의 도발에 즉시 대응하여 남진시킴으로써 국경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되었다고 주장한다.²¹⁾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북한이 이미 잘 계획된 남침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던 상태에서 남한측의 도발에 직면하여 인민군 전체 병력 중 당

20)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 568.

21) *Ibid.*, p. 617.

시 기동훈련을 위해 동원 중이었던 병력을 이 전면전 계획에 따라서 남하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그가 “제2의 모자이크” 내에서 6·25전쟁 원인의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의 핵심은 6·25전쟁 원인은 옹진반도 상에서 남한측에 의한 도발이라는 국경분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전론을 제시함으로써 커밍스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6·25전쟁 발발의 타이밍 문제, 즉 왜 6·25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나지 않고 6월 25일에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도 6·25전쟁 원인을 전쟁 직전까지 계속되어온 국경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찾음으로써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커밍스는 한반도가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됨과 동시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점령되는 1945년의 시점으로부터 6·25전쟁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만, 그는 분할점령에 뒤이어 남북에서 각각 등장한 분단국가의 성립에 의한 남북분단 그 자체만으로 6·25전쟁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6·25전쟁 이후 50년 가까이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있으면서도 또 다른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분단 그 자체가 전쟁 발생의 원인을 설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커밍스는 남북분단이 자동적으로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전쟁 필연론을 피하기 위하여 옹진반도 근처에서 남한측의 도발과 북한측의 반격에 의한 국경분쟁의 연장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제2의 모자이크” 가설을 전개하고 전쟁 발발의 타이밍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경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전쟁 원인을 찾는 커밍스의 내전론에 따르면 북한이 남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독자적으로 남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소련이 이러한 북한의 남침계획을 사전에 몰랐을 것이다. 또한 소련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 북한에 대해 대규모의 무기 지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가설들이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커밍스 역시 이러한 가설들을 제기하고 6·25전쟁 개전 당시 소련이 북한에게 최신의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경험적 사실을 들어 자신의 가설들을 입증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²²⁾ 커밍스의 입장은 전쟁 발발과 관련하여 소련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펙트럼상의 맨 좌측에 위치한다면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그 정반대의 우측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소련문서들은 소련이 1949년 10월말부터 38선상에서 북한군이 대규모 국경분쟁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10월 27일 정치국은 그로미코(Andrei Gromyko) 명의로 스티코프에게 긴급전문을 보내서 중앙, 즉 스탈린의 지시없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어떠한 도발도 하지 못하도록 정치국이 이미 대사에게 지시했음을 환기시키고 지금부터 38선상에서 일어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모스크바로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²³⁾

소련문서 공개 이전에 커밍스가 철저히 검토하고 인용하고 있는 주한 미군 군사고문단 정보보고서들은 1949년 10월 21일부터 1950년 2월 14일까지의 시기에 남북한 사이에 대대 또는 연대급을 동원한 국경분쟁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규모 충돌만이 국경 정찰시에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²⁴⁾ 또한 방선주가 찾아낸 1950년 3월 8일자 북한 내무성 경비국 총참모부의 극비 작전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3월 7일 현재 서부의 연백에서 동부의 양양에 이르는 38선 전국경선에서 대규모 국경분쟁은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²⁵⁾ 1950년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어 오던 대규모의 국경분쟁이 갑자기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의 이례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군사고문단 정보보고서를

22) *Ibid.*, pp. 446-447.

23) Gromyko to Shtykov, October 27, 1949 in Weathersby, "The Soviet Role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pp. 446-447.

24) Intelligence Summary Nos. 2611, 2618, 2625, 2632, 2652, 2655, 2665, 2674, 2681, 2688, 2694, 2710, 2715, Far East Commnad, Record Group 338. 여기서 정보보고서 2715번은 1950년 2월 14일자이다.

25) SA 2009, Item 9/69, RG 242. 이 문서는 방선주의 논문(1986, pp. 77-78)에서 재인용되었다.

검토한 커밍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소련문서가 공개된 이후 6·25전쟁 원인을 둘러싸고 커밍스와 웨더스비는 ‘국제냉전사 프로젝트 휘보’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웨더스비는 잡지에 그동안 소련문서를 번역 게재하면서 커밍스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커밍스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그녀의 사료 해석 방식과 6·25전쟁 해석을 비판하는 글을 보냈고 이 잡지가 웨더스비의 반론을 동시에 게재함으로써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²⁶⁾ 이 글들은 매우 짧지만 탈냉전 이후 수정주의자들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논쟁에서 커밍스는 1949년 말까지 계속된 국경분쟁이 대규모 분쟁이었던지 아니면 정찰시 발생한 소규모 충돌이었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단지 1949년 말까지 국경분쟁이 계속되었다고만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내전론의 근거를 지키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커밍스-웨더스비 논쟁 이후 미국에서 6·25전쟁 원인과 관련하여 방대한 저서를 출간한 학자는 오랫동안 6·25전쟁에 관심을 가져온 스투크(William Stueck)이다. 스투크는 6·25전쟁 직전 38선상에서 계속된 남북한 사이의 국경분쟁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는 수정주의자들의 내전론을 비판한다. 물론 그는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6·25전쟁의 발생에 끼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6·25전쟁을 내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쟁의 성격과 영향을 너무 편협하게 설명하여 그것이 갖는 세계사적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²⁷⁾ 스투크는 6·25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의 대체물이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6·25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냉전 시기의 인류는 제3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비록 이 전쟁이 한반도내에 그 전쟁의 범위가 국한되는 국지전의 양상

26) Bruce Cumings, “To the Editor,” Kathryn Weathersby, “Responds,” *CWIHP Bulletin*, Vols. 6-7, pp. 120-122.

27) 윌리엄 스투크, 김형인 외 역, 『6·25전쟁의 국제사』(서울: 푸른역사, 1995), p. 13.

을 띠었지만, 전쟁의 치열성과 그에 따른 희생은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것이었다고 그는 주장한다. 스톡의 저서에서 보는 것처럼 탈냉전 이후 6·25 전쟁 원인에 관한 미국의 연구 경향은 ‘스탈린 지시설’과 ‘내전론’의 어느 양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김일성의 개전 의지와 스탈린의 세계전략적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²⁸⁾

3. 6·25전쟁 직전 중·소 관계의 평가를 둘러싼 논란

미국의 6·25전쟁 연구사를 살펴보면 전쟁 원인에 관한 논의는 남침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대결로 인하여 공산측이 북한의 남침과 소련과 중국의 전쟁 모의 과정에서 개입한 사실을 극구 부인함으로써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띤 일종의 소모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과 소련의 개입을 의심치 않았던 미국 고위관리들의 주된 관심은 6·25전쟁 결정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집중되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중국의 개입 이유를 놓고서 미국 정부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논란은 소련 및 중국문서 공개 이후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중국 변수가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 이후 중국을 끌어들이 대소련 봉쇄에 이용한다는 키신저의 ‘삼각외교전략’은 미국이 중국 변수를 극적으로 이용한 예이다. 탈냉전 시기에도 미국의 세계전략은 항상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6·25전쟁의 역사적 경험은 여전히 현실정책적 의미를

28) 이러한 입장은 국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김학준, *ibid.*, p. 104를 참조.

갖고 있다.

6·25전쟁 직전 중·소 관계는 어느 정도 견고했는가 하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탈냉전 이후에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유고의 티토가 중국공산혁명 성공 이전에 독자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공산권이 소련 중심의 뚜렷한 상하관계를 갖는 단일체라는 논리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중국의 민족주의적 색채가 새로운 중소동맹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6·25전쟁 결정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지가 냉전 기간 중 6·25전쟁 및 중국문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었다. 이 문제는 국제정치이론가들에게도 중요한 이론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동일한 이념을 갖는 국가들의 동맹관계는 견고한 것인가 아니면 이념의 종류에 따라서 그 견고성은 차이가 나는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려는 이론적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²⁹⁾

탈냉전 이후 새로운 자료에 기초한 중소관계에 관한 미국의 연구들은 6·25전쟁 직전 중·소 관계가 1960대 중반 중·소분쟁 시기 때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매우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소련은 중국이 티토처럼 독자노선으로 갈 것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스탈린의 6·25전쟁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흔히 췌기이론(Wedge Theory)이라고 불리는데 신흥 공산국가인 중국이 티토의 유고와 같이 서방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소련의 영향권 하에 묶어두기 위해 스탈린이 6·25전쟁에 동의했고 중국을 전쟁 계획에 끌어들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 주장은 냉전 시기에도 소련과 중국 전문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주장되어 오다가 최근 또 다시 미국 학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³⁰⁾

29)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the Allianc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35-37.

30) 췌기이론에 관해서는 Harrison Salisbury, *War Between Russian and China* (New York: Norton, 1969), pp. 83-98; Edgar Snow, *Red China Today: The Other Side of the Rivew* (New York: Random House, 1970), pp. 679-681; Adam Ulam, *The*

스톡은 췌기이론가들이 1949년초부터 1950년초까지 소련과 중국의 연락 책임자였던 코발레프(Ivan V. Kovalev)의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³¹⁾ 코발레프는 모택동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한다고 의심했고 이러한 불신감이 스탈린에게 전달되어 중국의 대미경사정책을 차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스탈린이 6·25전쟁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³²⁾ 탈냉전 이후 공개된 소련과 중국 문서들은 스탈린이 남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모택동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한 유사시 중국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두었다. 중국의 개입은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을 유발하여 미·중 관계 개선을 당분간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소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소련은 미국과의 세력균형전략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탈린이 중국혁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우려했기 때문에 중·소 관계가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 직전 모택동이 대소일변도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중소동맹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노선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히

Communists: The Story of Power and Lost Revolutions, 1948-1991(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92), p. 79; Kathryn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1945-1950: New Evidence from Russian Archives," Working Paper No. 8, Woodrow Wilson Center, 1993, p. 32;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99 등을 참조.

31) William Stueck, "Book Review of *Uncertain Partners*,"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3, No. 4 (Winter 1994), p. 400.

32) Goncharov, et. al., *ibid.*, pp. 17-18. 코발레프의 인터뷰에 관해서는 Ivan V. Kovalev, "Stalin's Dialogue with Mao Zedong,"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X, No. 4 (Winter 1991-1992), pp. 45-76을 참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췌기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스탈린이 6·25전쟁을 결정하면서 미국 개입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는 문제를 해석하면서 논리적 모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는 데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이 이론을 전개하는 웨더스비는 스탈린은 미국이 6·25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후 북한의 남침을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³³⁾ 그렇다면 췌기전략이론은 6·25전쟁을 통해서 스탈린이 기대한 미국과 중국의 직접적 군사적 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스탈린이 미국과 중국간의 충돌을 유도하여 두 국가 사이에 췌기를 박으려고 했다는 췌기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췌기이론은 향후 전개될 중소분열 가능성을 6·25전쟁 발발과 전개과정을 통해서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이론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냉전 시기 공산권의 중앙집권적인 동맹 노선은 강한 결집력을 보일 것 같지만 세계공산주의 운동의 지도력은 단일 국가가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이념논쟁이 벌어질 경우 공산주의 동맹권의 분열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췌기이론은 보여주고 있다.

4. 6·25전쟁 결정시 중국의 역할과 중국의 개입 이유에 관한 연구 동향

과거 북한의 남침을 중국이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수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중국불개입설’에서부터 ‘중국적극개입설’에 이르기

33) Weathersby, "Soviet Aims in Korea and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p. 31.

까지 실로 수없이 많은 주장들이 미국 학계에서 제기되었다. 중국불개입론자들은 신생공산중국이 국내 재건을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평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의 모험적 노선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일련의 문서들은 모택동이 북한의 남침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6·25전쟁은 북방 공산 3국의 사전 협의를 거쳐서 발생했다는 것이 미국 학계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모택동이 북한의 남침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는지 아니면 스탈린의 결정을 마지못해 따랐는지 하는 점이다. 우선 모택동은 대만 통일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공군력과 해군력의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대만 해협에서의 분쟁이 소련의 개입을 노출시킬 것을 우려한 스탈린의 반대로 인해 중국은 6·25전쟁 이전에 대만 통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 또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미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급파함으로써 중국내전에 다시 개입했고 중국의 대만통일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중국 국익의 관점에서 모택동은 북한의 남침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최근 공개된 문서들은 모스크바정상회담 때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문제를 모택동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³⁴⁾ 모택동은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 지원 의사를 표명한 후 전쟁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 북경을 방문한 김일성으로부터 남침 결정에 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모택동은 초기 전쟁 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다가 남침이 기정사실화된 이후 통보와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Dieter Heizig, "Stalin, Mao, Kim and Korean War Origins, 1950: A Russian Documentary Discrepancy," *CWIHP Bulletin*, Vols. 8-9, p. 240. 후르시초프와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남침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들의 입장에 관해서는 *Chen Jian, China's Road to the Korean War*, p. 88; Hao Yufan and Zhai and Zhihai, "China's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 *China Quarterly*, No. 121 (March 1990), p. 100 등을 참조.

북한의 남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국익에 반하는 점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지원하기로 한 모택동의 결정은 ‘혁명적 낭만주의’와 ‘영구혁명’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주장한다.³⁵⁾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할 충분한 군사적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지도자들은 인민전쟁론에 대한 신념을 갖고 이 전략을 통해 군사기술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안보와 문화의 연관성을 중시하는 국제정치이론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³⁶⁾ 국익과 안보에 대한 분석은 더 이상 군사적 측면에 기초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군사력을 움직이는 안보문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위협과 부담에 대한 우려는 혁명적 열정 앞에서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만다. 중국의 6·25전쟁 지원 및 개입 결정은 모택동의 혁명관과 안보문화관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미국내에서 최근 가장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6·25전쟁 연구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안보문화적 해석은 중국의 개입 이유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과 뚜렷이 구분된다. 중국 개입과 관련된 전통주의적 입장은 공산권을 소련 중심의 단일체제로 보고 소련의 지시에 의해 중국이 개입했다고 보았다. 전통주의적 입장은 유엔군이 중국 국경으로 진격하자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자체적 판단에 의해 개입했다는 수정주의적 입장에 의해 비판받았다.³⁷⁾ 미·소 냉전 대결이라는 양극적 질서하에서 중국의 독자적 판단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전통주의적 입장에 대한 비판은 중·소 분쟁 격화와 미·중 관계 개

35) Chen Jia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pp. 49-84; Shu Guang Zhang, *Mao's Military Romanticism*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5), pp. 12-30.

36) Alastair A.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Peter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37) Allen Whiting, *China Crosses the Yalu*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p. 154-161.

선을 통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수정주의적 입장은 최근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뚜렷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6·25전쟁 개입 이유를 6·25전쟁 이후 미국의 제7함대 파견 및 압록강 진격에서 찾는다고 하면 수정주의적 입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이전 북방 공산 3국 사이에 진행된 6·25전쟁 결정 과정을 고려해 볼 경우 중국의 안보위협 인식에 의해 중국의 개입을 설명하려는 수정주의적 설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모택동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남침을 허락한 것은 수정주의적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점을 극복하기 위해 앞서 지적한 안보문화론은 모택동과 중국지도자들의 혁명관에 기초하여 중국 개입을 설명한다.

최근 미국내에서 중국의 6·25전쟁 개입과 관련된 연구들은 중국이 미국의 압록강 진격에서 오는 안보위협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쟁 개입 후 모택동은 제3차 대규모 공격 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을 한반도로부터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대공세를 감행했다.³⁸⁾ 모택동은 단순히 북한 지역을 회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의 공세에 직면하여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핵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은 세워두고 있었지만 핵 공격 우려가 중국의 전쟁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의 개입을 단순히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넘어서서 중국의 전략 문화 및 지도자의 인식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의 역할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 결과는 그동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6·25전쟁 직전 미국과 중국 사이에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밝혀 주는데 도움을 준다. 당시 트루만 행정부는 티

38) Chen Jian, "China's Changing Aims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1,"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1 (Spring 1992), p. 27.

토처럼 중국을 소련의 세력권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중·소 사이의 분열을 강조하고 중국의 민족주의적 경향성을 자극하려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6·25전쟁 직전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는 상충되었고 쌍방은 서로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있다.³⁹⁾ 따라서 미·중 관계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고 상호간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개선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5. 6·25전쟁과 냉전의 기원 및 전개과정 에 관한 연구 동향

개디스(John Louis Gaddis)는 탈냉전 이전에 발표된 논문에서 미·소 냉전 대결의 분기점이 된 사건은 트루만 독트린이 아니라 6·25전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⁰⁾ 지금까지 냉전의 분기점이 된 사건들로서 트루만 독트린, 마셜 플랜, 코민포름의 결성, 6·25전쟁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련과 동구권의 문서 부재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해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냉전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을 새로운 문서들을 동원하여 검증함으로써 과연 미

39) John W. Garver, "Polemics, Paradigms, Responsibility, and the Origins of the U.S.-PRC Confrontation in the 1950s,"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3 (Spring 1994), pp. 1-34; Thomas J. Christensen, "A 'Lost Chance' for What? Rethinking the Origins of U.S.-PRC Confrontation," *Journal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Vol. 4 (Fall 1995), pp. 249-278.

40) John Louis Gaddis, "Was the Truman Doctrine a Real Turning Point?" *Foreign Affairs*, Vol. 52, No. 2 (January 1974), pp. 386-402.

국과 소련 중 누구의 정책이 냉전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냉전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에 대한 규명은 유럽에서 전개된 냉전대결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 놓여 있던 동북아 냉전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개디스는 최근 연구에서 1947년 6월 5일 마샬(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의 하바드 연설을 계기로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된 유럽경제부흥계획안(European Recovery Program)인 마샬 플랜(Marshall Program)이 미·소 냉전 대결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견해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⁴¹⁾ 마샬 플랜에 대응하기 위해서 1947년 9월 스탈린은 즈다노프로 하여금 양진영 이론을 제시하게 하고 코민포름을 결성하여 동구권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 후 미·소 양국이 취한 일련의 정책들은 냉전 대결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서독 지역을 서구 유럽경제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단일통화를 도입하게 되고, 이에 대응하여 1948년 6월 소련은 미국을 베를린시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베를린 봉쇄를 강행하게 된다. 미국은 약 1년에 걸쳐 공수작전을 취함과 동시에 서독에서의 단독정부 수립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결국 유럽 지역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권으로 뚜렷하게 양

41) 이 점에 관해서는 John L. Gaddis, *We Now Know* (Oxford: Clarendon Press, 1997), pp. 31-36; Vladislav Zubok and Constantine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pp. 50-51; Vojtech Mastny, *The Cold War and Soviet Insecurity: the Stalin Yea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7-28; Melvyn Leffler, "Inside Enemy Archives: the Cold War Reopened," *Foreign Affairs*, Vol. 75, No. 4 (July/August 1996), p. 133; Parrish and Narinsky, "New Evidence on the Soviet Rejection of the Marshall Plan, 1974; Two Report," pp. 1-51; Geoffrey Roberts, "Moscow and the Marshall Plan: Politics, Ideology and the Onset of the Cold War, 1947," *Europe-Asia Studies*, Vol. 46 (1994), pp. 1371-1386 등을 참조. 마샬 플랜이 미소 냉전 대결의 심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이미 탈냉전 시기에 Milovan Djilas, *Conversations with Stalin*, Michael B. Petrovich, tran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2), pp. 127-128에서 제시된 바 있다.

분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미소의 냉전 대결은 일종의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미 개디스 자신이 냉전 이후 마샬 플랜을 냉전의 분기점으로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기존 입장을 이미 상당 부분 수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 플랜이 유럽을 양분시켰지만 냉전 대결의 군사화는 6·25전쟁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개디스의 주장은 여전히 타당성을 잃지 않고 있다.

동북아 지역 냉전은 한반도 분단, 미소 공위의 실패, 중국공산혁명, 6·25 전쟁 등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 원인을 찾아 왔다. 최근 미국에서는 6·25 전쟁 중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이 유럽의 마샬 플랜처럼 동북아 냉전구조를 교착시킨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⁴²⁾ 미국은 소련과 중국을 배제한 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단독강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이 경직된 냉전적 양극체제로 발전하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공산권 문서들은 6·25전쟁 직전 소련이 중국과 새로운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과의 합의한 알타협정을 폐기처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⁴³⁾ 중국공산혁명에 뒤이어 체결된 중소동맹조약은 알타협정의 파기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의 잠재적 적국을 일본으로 명시함으로써 미·소 대결의 격화와 함께 뚜렷한 양극적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동북아 냉전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신조약을 통해 알타협정이 파기됨과 동시에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북아 냉전은 유럽과 달리 냉전 초기 열전으로 비화되었다. 중국과 신조약의 중요한 골격을 마무리 짓는 1950년 1월 22일의 회담 직전에 스탈린은 북한의 스티코프 소련대사로부터 1950년 1월 17일

42) Kimie Hara, "Rethinking the 'Cold War' in the Asia-Pacific," *The Pacific Review*, Vol. 12, No. 4 (1999), p. 520.

43) 이 회담 기록은 Conversation between Stalin and Mao, December 16, 1949, *CWIHP Bulletin*, Vol. 5, pp. 7-9를 참조.

김일성이 남침의 승인 여부를 타진했다는 전문을 1월 19일 접수했다. 그 이전에도 김일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알타협정을 파기하는 공산중국과의 신조약 체결을 결정하기 이전까지는 38선은 미국과 합의에 의해 그어진 양국 사이의 세력분할선이기 때문에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지 않았다. 신조약 체결이 결정되자마자 스탈린은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스탈린이 중국과 신조약을 체결하고 아시아에서의 알타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는 시점과 거의 동시에 북한의 남침을 승인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냉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전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 냉전 원인을 한반도 분단 혹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등장에서 찾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 결 론: 여타 연구 주제들과 향후 연구 과제

이상에 논의된 연구 주제들 외에 미국 학계에서는 6·25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는 소련 공군의 참전과 관련된 주제이다. 소련 공군 참전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6·25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이 사실을 포착하고 있었지만 극비사항으로 분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은 신의주 근처의 ‘미그 엘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다. 최근에 공개된 소련측 문서는 1950년 11월 1일부터 1951년 12월 6일까지 소련의 전투기가 510대의 미군 비행기를 파괴했고, 소련의 대공포가 59대의 미군 비행기를 격추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⁴⁴⁾ 이에 비해 이 기간에 소련측은 63대의 최신

44) Shtemenko to Poskrebyshv, December 9, 1951 in Weathersby, “The Soviet Role

미그15기와 30명의 조종사를 잃었다고 이 문서는 적고 있다. 소련 공군 참전은 두 초강대국 사이의 제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학자와 일반인들의 관심도 매우 높다.⁴⁵⁾ 특히 맥아더는 만주지역 소련군 공군기지에 대한 폭격 허용을 요구하다가 전면전 확산을 우려한 트루만에 의해 해임되었다. 소련 공군 참전과 관련된 연구는 전략적·군사적 관심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소련 공군의 참전이 중국 공군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다.⁴⁶⁾

중국 개입을 전후하여 소련이 중국에게 충분한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를 꺼림으로써 오히려 중소관계가 악화되었고 중·소 분쟁의 단초는 6·25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⁴⁷⁾ 소련이 붕괴한 현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 세계전략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 분쟁의 원인을 찾으려는 학문적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중소조약은 중국에게 불평등한 측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중국의 독자노선을 우려한 소련은 중국이 원하는 전략 무기 및 항공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문서들은 6·25전쟁 기간 중 소련의 군사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중국이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군사지원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이 주제는 중·소 분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의 세계사적 중요성에 비추어 여타 전쟁들과 비교하려는 연구

in the Early Phase of the Korean War," pp. 457-458.

45) Jon Halliday, "Air Operations in Korea: the Soviet Side of the Story," in William J. Williams, ed., *A Revolutionary War* (Chicago: Impact Publications, 1993), pp. 150-152.

46) Xiaoming Zhang, *Red Wings over the Yalu: China, the Soviet Union, and the Air War in Korea*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2002).

47) Gaddis, *We Now Know*, p. 84.

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⁴⁸⁾ 그동안 6·25전쟁 연구는 지나치게 국지적 차원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 전쟁 관련 당사국들의 문서들이 대부분 공개되었기 때문에 6·25전쟁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6·25전쟁 연구는 국제정치이론 발전을 위한 사례로서도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학계는 여타 전쟁들은 특정 국제정치이론을 연구하기 위한 사례로서 많이 인용하지만 6·25전쟁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미국 학계에는 여전히 수정주의적 6·25전쟁 해석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성격이 부각됨으로써 역사와 이론 사이의 학제간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개입 이후 미국은 본토에 제82공수사단을 제외한 모든 가용한 전투사단을 6·25전쟁에 투입했다. 당시 일본에 주둔 중이었던 전투사단을 포함한 7개 사단이 6·25전쟁에 참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9·11테러 이후 모든 가용한 전투사단이 이라크 및 테러와의 전쟁에 동원되었고 여기에 투입된 미군 연인원은 100만명을 넘어섰다. 미국 주방위군(National Guard)과 예비군의 상당수가 테러와의 전쟁에 동원되어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6·25전쟁 당시 주방위군 동원과 배치에 관한 연구 성과들도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⁴⁹⁾ 당시 동원된 주방위군과 예비군들은 미국 국내 방위에 투입되었거나 독일에 투입되었다. 전투 부대 및 예비군 동원에 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 연구로서 6·25전쟁과 부대 운용에 관한 연구는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6·25전쟁이 미국 국내정치 및 경제에 끼친 연구는 미국 학계에서 새롭

48) David R. McCann and Barry S. Strauss, *War and Democracy: A Comparative Study of the Korean War and the Peloponnesian War* (New York: M. E. Sharpe, 2001).

49) William M. Donnelly, *Under Army Orders: The Army National Guard during the Korean War* (College Station: Texas A & M University Press, 2001).

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그동안 냉전이 미국이 어떻게 안보국가로 발전해 가는데 기여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있었다. 우선 6·25전쟁은 미국이 유엔군의 깃발 하에 참전한 전쟁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및 참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6·25전쟁은 전후 의회의 승인없이 미국이 참전한 최초의 전쟁이 되었고 베트남전쟁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6·25전쟁의 사례는 의회가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제약하려는 중요한 전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 개입 이후 미국은 6·25전쟁을 위해 일종의 비상경제 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6·25전쟁이 미국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과 함께 본격적인 안보국가로 등장하는 계기로 보고 NSC 68의 집행 과정이 6·25전쟁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⁵⁰⁾ NSC 68은 소련의 핵무기 개발 이후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한 문서로서 6·25전쟁 직후 트루만에 의해 승인되었다.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의 전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 790억 달러, 2004년 870억 달러, 2005년 1,0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전쟁 비용의 증가가 미국 국내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기 때문에 6·25전쟁의 경험을 이라크 전쟁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이 미국 국내 경제정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새로운 중소조약 체결을 위한 모스크바 정상회담이 진행 중일 때 유엔을 보이콧했다. 탈냉전 이후 일련의 회고록과 인터뷰를 통해 볼 때 유엔외교관의 철수는 스탈린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소련의 보이콧은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은 유엔안보리를 통하여 유엔사령부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켜 6·25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확보했다. 안보리 불참은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50) Paul G. Pierpaoli, *Truman and the Korean War: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Early Cold War* (Columbia, MO: University of Missouri Press, 1999).

기권으로 본다는 관행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소련의 불참으로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은 통과되었던 것이다. 만약 스탈린이 소련 외교관의 참석을 명령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미국의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고 6·25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을 것이다. 소련의 보이코트와 관련하여 스탈린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소련측 공식문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스탈린이 미국의 6·25전쟁 개입을 용인하기 위해 일부러 보이코트를 했는지 아니면 우연한 실수인지에 따라서 6·25전쟁 결정과 관련된 스탈린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다.

미국 학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해결의 의문은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공개적으로 제외시킨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 대한 소련의 반응이다. 인터뷰를 통해서 모스크바 정상회담 중 이 연설을 듣고 소련은 미국이 6·25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연설을 듣고 스탈린이 미국의 불개입을 확신했다고 한다면 유사시 미국 개입에 대비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모택동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원조를 약속받도록 조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자료들은 스탈린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애치슨 연설에 대한 소련의 반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려는 미국 학계의 관심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그동안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 혹은 ‘더러운 전쟁’으로 평가되었다. 미 국민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베트남전쟁 기념탑은 1982년 워싱턴에 세워졌다. 그러나 6·25전쟁 기념탑은 냉전이 끝난 후 1995년 워싱턴에 세워졌다. 이러한 시차는 6·25전쟁에 대한 그동안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6·25전쟁에 직면하여 미국과 서

방 진영은 결코 공산세력의 팽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 주었다. 또한 6·25전쟁 이후 체결된 한미동맹하에서 한국은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6·25전쟁은 '잊혀진 전쟁'으로 치부될 수 없다.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고 세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용한 교훈을 도출해내기 위해 탈냉전기 6·25전쟁과 관련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연구 주제의 모색과 새로운 해석을 위한 학문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원고투고일 : 2005. 4. 25, 심사완료일 : 2005. 6. 4)

주제어 : 6·25전쟁, 전통주의, 수정주의, 내전론, 썬기이론

K C I

<ABSTRACT>

A Study on Research Trend on the Korean War in the United States

Kim, Young-ho

This article is designed to analyze the recent scholarship and findings on the Korean War in the United States. Three distinct periods is to be identified in the study of the Korean War in the United States. Common issue areas in three period will be selected and discussed in detail.

The first period began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and continued until a revisionist trend appeared in the end of 1970s. The debate on the war revolved around the memoirs and articles of the officials directly involved in the decision to go to the war in Korea. The US government declassified the documents on the war after the 25 years passed after the outbreak of the war. The important official documents on the war was published in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in 1976. Before its publication the US government made secret information on the war open to the public during the MacArthur hearings. It is unusual that the secrets documents on the ongoing war we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During the same period I. F. Stone published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and received public atten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book had a conspiratorial tone. The book was translated in Japanese and contributed to the emergence of a revisionist tendency in the Japanese academic circle and the public.

The second period began with the anti-Vietnam War demonstrations in

the universitite in the United States. The movement against the Vietnam War was critical of official US foreign policies and traditional interpretations of the Cold War ad the Korean War. The revisionist interpretation on the Korean War was followed by revisionism in the study of the Cold War. With the emergence of the revisionist trend foreign policies of the regions in which the United States was involved were severely criticized. US involvement in the Korean War was also criticized. Revisionism finds the origins of the Cold War in the defects of the capitalist system. The Cold War began when the US government pursued an expansionist policy to find new markets as part of overcoming the crisis of capitalism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Soviet Union was an incomplete superpower and weaker than the United States in terms of military and economic powers. Despite Soviet weakness the United States exaggerated Soviet threat and presented a distorted view of Communist monolith under the Soviet central control.

The third period began with the opening of the archives of former Communist countries at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S academic circle and research foundations made great efforts to obtain and translate these documents and to facilitate the opening of closed archives. The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was launched in 1991 with financial support of the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The project began to publish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Until recently the Bulletin was published fifteen times. The 47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Working Papers were published until recently. With the opening of Soviet archives Chinese documents on the war we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debate on the discrepancy between Soviet and Chinese materials on the Korean War decision contributed to shedding new light on the process of involvement of the two countries in the war. The new scholarship involves a study using captured documents of North Kore at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These trends mean the true beginning of multi-national archival research.

The themes of this paper involves the causes of the war which has constituted the most controversial topic in the study of the war. The new documents show that the invasion was the result of the pre-planned conspiracy among the three communist countries. Yet the debate continues on who played the dominant role in the decision and what kind of strategic interests Stalin pursued in the decision to support the North Korean invasion. American scholarship focuses on the reasons for Chinese intervention. Th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r on the development of the Cold War in Northeast Asia is much to be desired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ubject. After analyzing the subject mentioned above the article concludes by providing some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study of the Korean War.

Key Words: The Korean War, Traditionalism, Revisionism, Civil War, Wedge Theory

K C I